

葯窓 朴燁의 시세계

이 승 수*

차 례

1. 머리말
2. 문집의 서지와 작품 현황
3. 시세계 속의 일상과 내면
4. 맺음말

| 국문초록 |

박엽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극단으로 엇갈렸다. 인조반정에 성공한 권력은 그를 ‘폭정을 일삼은 탐욕스러운 관리’로 혹평했지만, 재야에서는 ‘국난을 타개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도 억울하게 죽은 인재’로 추켜세웠다. 심지어 그는 만리장성으로 비유되기까지 했다. 전자는 반정 정당화 과정에서 과도하게 폄하된 결과이고, 후자는 이에 대한 의문·불만·부정 속에서 배태되어 다소 부풀려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박엽의 정치적 행보와 그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밀어두고, 그가 남긴 시를 중심으로 인간 박엽의 일상과 내면을 엿보았다. 그 결과 서북 변경의 외지를 옮겨 다니느라 피로한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 가운데 사람들과 이별하는 내면의 잔잔한 파동도 감지되었다. 전란이 훑고 지난 도시를 바라보며 허탈감에 잠기는 모습도 나타났다. 죽음의 기운을 느끼며 체험하는 듯한 무의식의 작용도 시어 안에 감추어져 있었으며, 죽음을 상상(또는 맞이하면서) 풀죽지 않는 의기의 격동이 작품 밖으로 흘러넘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정치적 평가로만 덮어씌울 수 없는, 숨을 쉬며 54년을 살았던 인간 박엽의 여러 면면이다.

핵심어 : 박엽, 광해군, 인조반정, 약창유고, 법수교

1. 머리말

조선시대 朴燁(1570~1623)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엇갈렸다. 반정에 성공한

* 한양대학교

권력은 그를 ‘폭정을 일삼은 탐관’으로 혹평했지만, 재야에서는 ‘국난을 타개할 만한 인재’로 추켜세웠다. 심지어 그는 만리장성으로 비유되기까지 했다. 전자는 반정 정당화 과정에서 과도하게 폄하된 결과이고, 후자는 이에 대한 의문·불만·부정 속에서 배태되어 다소 부풀려진 것이다.¹⁾ 세상의 모든 가치에는 반대의 것이 내포되어 있다. 관점과 목적에 따라 운치와 풍류는 사치와 향락으로 비추어지고, 균율과 기강은 포악과 억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엽의 정적들은 후자만을 부각시켜 평가했고, 지지자들은 전자의 가능성을 못내 아쉬워했던 것이다. 태도 여하를 떠나 이러한 평가에는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동한다.

이 글에서는 가급 정치적 역학관계는 털어내고, 그가 지어낸 시세계를 조망하여 인간 박엽의 일상과 내면의 서너 장면을 엿보고자 한다. 박엽은 주로 關外の 무관직을 전전했지만 문과 출신이었으며, 유몽인·허균·이안눌·차천로·이호민 등 당대 최고의 문사들과 교유하며 시를 주고받았다. 이는 박엽 자신이 상당한 수준의 詩文 교양을 갖추었음을 암시한다.²⁾ 박엽은 당대 문사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사연들과 심정의 변화를 적지 않은 시문에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외직을 전전하느라 체계적인 정리 보관이 어려웠고, 반적으로 몰려 갑자기 처형되면서 흩어진 채로 방치되었으며(오히려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혈손이 끊기면서 수습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시문은 몇 편 되지 않는다.

아쉬운 대로 이 남아있는 시문은 매우 소중하다. 때로 넘치는 말에 건질 게 하나 없고 反句隻語에 무궁한 의미가 담긴 것처럼, 시의 가치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 없는 마음 思無邪’이라는 시에 대한 공자의 정의가 유

1) 박엽에 대한 연구는 몇 차례 보고된 바 있다. 이승수, 『葯窓 林樾論』, 『민족문화연구』 4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엽태웅, 「박엽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고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45, 우리어문학회, 2013은 박엽의 특수한 역사 위상에 대한 고찰이다. 신승훈, 「번암 체제공의 이충백전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5,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4; 김정희, 「이충백전에 나타난 체제공의 문제의식 고찰」, 『한국문학연구』 49,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5에서는 체제공의 「이충백전」에 그려진 박엽의 성격을 조망하였다.

2) 뿐만 아니라 박엽은 젊은 시절 『수호전』의 애독자였고, 1622년에는 명나라 패설집인 『絶纓三笑』를 새로 편집하여 『鍾離瓠盧』를 간행할 만큼 서사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엽태웅, 앞의 논문 참조.

효하다면, 시는 독립적인 미적 구조물인 동시에 한 사람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가장 투명한 창이 된다. 최근 보고된 몇 편의 논문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왜곡된 박엽의 면모를 바로잡았다면, 이 글은 정치와 역사라는 무거운 장막을 걷어내고, 섬세하고 유약했던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몇 지점을 엿보고자 한다. 정치적으로만 착색된 한 역사 인물의 내면과 일상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박엽의 시에 대한 조명은 아직 시도된 바 없다.

2. 문집의 서지와 작품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의산문고에는 두 권으로 이루어진 필사본 『葑窓遺稿』가 소장되어 있다. 간행 관련 글이 실려 있지 않아 필사 또는 成書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부록으로 실려 있는 「박엽전」(홍직필, 1776~1852)이 1834년에 창작되었으니, 이 책은 그 이후인 19세기 후반 또는 20세기 초에 문중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본으로 간행되지 못한 데에는 경제적인 형편 등 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듯한 해서체의 글씨로 보아 필사자는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약창유고』의 체제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집은 시문의 형태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고, 창작 시점이나 상황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작품에 노출된 고유명사(인명, 관직명, 장소, 사건 등), 각종 문헌 기사 등으로 파악되는 박엽의 행적, 당대의 역사 상황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대략의 창작 정황을 추정할 수 있다.³⁾

	제 목	형식	비 고
권 1			
1	北靑送沈子順	7절	沈誼(1569~1644), 『소화시평』 수록, 1611, 2년
2	安岳使酒席供鴈, 忽有過鴈聲聞, 請以卽事成詠, 應口走筆	7절	『소화시평』 수록, 1609, 1610년,
3	兩元帥敗後到昌城	7절	1619년 3월말 심하전역 직후

3) 작품의 외적 정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비고' 칸에 기입하였다. 사실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를 표시하였다.

	제 목	형식	비 고
4	次前韻送別士述	7절	士述 (사람 ?)
5	挽竹林公子	7절	李英胤(1561~1611)
6	七夕	7절	
7	送金都事還洛	7절	金正善(1573~1622) (?)
8	次韻贈別睦御史	7절	睦敍欽(1572~1652), 원시, 丁學官次韻
9	送丁學官之鐵齏	7절	丁景蘭
10	黃崗新橋	7절	황해도 황주
11	馴鶴翁	7절	
12	再過月溪	5절	月溪 (지명 ?)
13	詠雪	5절	
14	關西值節使回自燕京 方宴追悼正使以上年捐館 口號一絕	5절	1608년 (?)
15	癸亥正月踏水橋	5절	『소화시평』 수록, 1623년
16	暮投德原	7율	
17	挽李僉知壽俊 爲冬至使客死鳳山	7율	1607년
18	送吳相國泛海朝京	7율	1622년, 오윤겸(1559~1636)
19	開寧途中	7율	일부 결자, 김천 (?)
20	淨土雜詠 (2수)	7율	일부 결자
21	代伯父送鄭參議冬至朝天	7율	1594년, 鄭淑夏(1541~1599)
22	亂後麒麟途中	7율	1593년 4월 20일 한양수복 직후
23	襄陽九日	7율	
24	洗肘日淇江舟中和李再榮	7율	李再榮(1553~1623)
25	新月	7율	
26	贈金南窓	5율	金玄成(1542~1621)
27	挽權叔節內	5율	權昕, 목대흠 『다산집』에 같은 제목 시 있음
28	東陽山城九日贈鄭士朝 鄭輔德	5율	鄭宗溟(1565~1626), 동양은 황해도 평산
29	有感	5율	
30	答梁學官	5율	양대박(1543~1592) (?)
31	香林雜詠 (2수)	5율	
32	送尹期仲赴黃州通判	5율	결자, 尹東老(1579~1660), 1610년 즈음
33	送尹期仲赴輪城	5율	함경도 경성
34	蕭寺奇朴	5율	
35	化鶴樓	5율	황해도 遼山
36	有感	5古	
37	辛亥冬在北青贈李念之先歸	5고	1611년, 李念之 (사람 ?)
38	挽沈兵使	5율	沈兵使 (사람 ?)
39	挽許知事 潛	5율	허잠 (?~1612 이전)
40	挽李僉知勤	7율	李勤 (1555~1635) * 박엽 사후
41	箕都雜詠	7배	임란 직후 1595년 (?)
42	逃懷贈別柳亨伯諸君船住江都	7언 100구	柳希奮 (1564~1623)

	제 목	형식	비 고
43	眞娘行	장단 56구	
44	溫陽老人買櫛行	장단 36구	
45	途中泥	장단 18구	
46	鳳棲樓	장단 8구	
47	奉呈 缺 老爺惠以佳什	7언 32구	임란 중 명 장수에게 준 답시
48	答崔先生書	尺牘	임란중, [부] 최생원서
49	癸亥寒食朝弟復新	尺牘	1623년, 崔復新 (매제)
50	辛酉八月十九日	尺牘	1621년
권 2			
51	盤石侯賦	賦	
52	不祭臯陶賦	賦	
53	動髮賦	賦	
54	斫案賦	賦	
55	降仙樓重建後 宣醞謝箋	箋	평안도 성천, 1618년
56	蜂衙志	志	
57	驪山講武賦	賦	
58	辭平安監司疏	疏	
59	論箕鐵兩城修築便否狀	狀	
60	論許廷式罪狀狀	狀	
61	皇朝查官呈文	呈文	
부 록			
	教義州府尹朴燁賞加書	教書	1615년
	教平山府使朴燁等築城時糧賞加書	教書	1609년
	教成川府使朴燁降仙樓等處諸館造成賞加書	教書	1618년
	教平安道觀察使朴燁監軍屢請褒陞賞加書	教書	1622년
	朴燁傳		홍직필, 『매산집』 권 51, 1834년
鶴山樵談(허균, 1593년) 소재 ⁴⁾			
	傷春曲	7율	
	仙子障	7절	
	月殿	5율	
	殘春	5절	
	仙洞謠	5절	

『약창유고』는 박엽의 시문을 묶은 2권에, 박엽에게 내려진 교서와 홍직필의 「박엽전」을 모은 부록이 더해진 구성이다. 시는 모두 47제 49수이다. 7언 절구가 11제 11수, 5언 절구는 4제 4수, 7언 율시가 11제 12수, 5언 율시가 12제 13수로 근체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7언 100구와 장단 56구 등 장편 고시가 6수 외에, 강렬한 주제 의식이 문면에 넘치는 賦도 4수나 된다. 분량에 비해, 박엽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 다양한 형식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19, 20번 시에는 缺字가 있는데, 이는 필사 당시 종이 쓰는 등 보존상태가 불량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의심스러운 점도 눈에 띈다. 40번 「挽李僉知勸」의 경우 李勸은 죽은 해는 1635인데, 박엽의 시로 수록된 것은 아무래도 착오가 아닐 수 없다. 49번 「癸亥寒食朝弟復新」의 작성자는 박엽의 매제인 崔復新이고 작성 시기도 박엽의 사후인 1623년 한식날이니, 수신자도 박엽이 될 수 없다. 아무래도 家傳 문건이 충분한 검토 없이 문집에 들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집의 편찬자 및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3. 시세계 속의 일상과 내면

3.1. 關外の 寒景과 客感

박엽은 1597년(28세)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1601년 형조 정랑으로 관직에 진출한다. 그런데 초반 몇 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 외직을 전전했다. 30대에는 해남 현감(35세), 평양 서윤(36세), 평산 부사(39세)을 거쳤다. 1608년 2월 광해군 등극 이후 40대에는 정치 위상이 더 높아졌으니, 황해병사(40세), 황주목사 겸 병마사(41세), 함경남도병사(42세), 의주부윤(44세), 성천부사(46세) 등을 거쳤다. 51세이던 1618년 9월에는 평안감사에 제수되었으며, 인조반정 직후인 1623년 3월 17일 평양에서 재판 없이 처형되었다. 박엽의 관련 특징은 두 가지이다. 문과 출

4) 허균은 『학산초담』에 박엽의 시로 다섯 수를 소개했다. 수록 경위가 분명치 않은데다 악의적 평가가 전제되어 있다. 박엽의 작품으로 확정하기 주저되는 바 있어 일단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신이면서 주로 武職을 맡았고, 근무지가 서북 변경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그의 시에는 서북 변경의 황량한 풍경 속 객수 어린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

더하여 사흘을 머무르자니	三日更留滯
밤 깊어 객수가 짙어지누나	夜深羈思多
침베 적삼 이슬에 무거워지고	葛衫承露重
삼베 건 바람결에 기울어진다	麻幘受風斜
시름겨워 술도 쉬이 취하며	易醉愁邊酒
꿈결에는 집을 자주 간다네	頻還夢裏家
고향 마을 점차 멀어져가고	鄉山漸覺遠
한 자루 칼, 바다 하늘 끝	一劍海天涯 ⁵⁾

시기와 장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용으로 보아 외직에 부임하러 가는 길에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침베 적삼[葛衫]과 삼베 띠[麻幘]는 외직에 나아가는 관리의 검소한 차림을, 이슬과 바람은 그 심경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암시한다. 관외 변방의 군사 업무가 순탄할 리 없으니 절로 시름이 일고[愁], 굳게 마음을 다잡아도 편안한 고향 집이 자꾸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임지가 가까워올수록 발걸음은 고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 시인의 마음은 마치 세상 끝자락[海天涯]에 선 것 같다. 그럼에도 나그네의 쓸쓸한 객감을 단단하게 잡아 주는 건, 변방 군무를 맡아 부임하는 관리의 책무와 의기이다. ‘한 자루 칼[一劍]’, 또는 칼을 단단히 움켜 쥔 손의 힘에서 그런 관리의 책무와 의기가 묻어나온다.

한 자루 나의 칼을 두드리면서	彈我一長劍
천 리 길 그대를 보내는 마음	送君千里心
술동이 비운 채 달 기다렸다가	壺輒仍待月
눈물 쏟고 또 길게 읊조리누나	淚盡更長吟
관외 길 찬 구름 끊어져 있고	關路寒雲斷
역정에 가을 풀이 우거졌으리	驛亭秋草深

5) 권 1, 「느낌이 일어有感」.

타향 땅 면모가 모두 낯설 터 他鄉新面目
 변방의 기러기가 지음이 되리 塞雁是知音⁶⁾

앞의 시와 달리 이 시에서는 ‘한 자루 긴 칼[一長劍]’이 첫 구부터 시상을 이끌며 분위기를 장악한다. 輸城은 함경도 경성에 속해 있던 역참이고, 尹期仲은 尹東老(1579~1660)이다. 윤동로가 수성에 파견된 해는 알 수 없다. 1구는 『사기』, 「맹상군열전」의 ‘馮驩彈鋏’에서 가져온 표현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강개한 지사의 심정을 담고 있다. 박엽도 외직에 있었던 만큼 가까이 사귀 인물들은 대개 비슷한 처지에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는 의기상통, 同明相照에 토대를 둔 共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술 다 마시고 눈물도 쏟아낸 뒤, 달 뜨기를 기다려, 시를 유장하게 읊조리며 이별을 못내 아쉬워한다. 8구의 ‘변방의 기러기[塞雁]’는 먼 길 오가는 철새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시인처럼 고향을 멀리 떠나와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낯선 그곳에 가면 철새 기러기만이, 또는 같은 처지의 우리 같은 사람이 서로 마음을 알아주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학성의 성 밖에는 큰 비가 퍼부을 제 鶴城城外傾盆雨
 치달려 원산 오니 해 아직 남아있네 馳到原山日未昏
 먼 이별에 절로 잠 들지 못하노니 遠別自然無夢寐
 하룻밤 오동잎 빗소리를 어이 견딜까 一宵那堪聽梧桐
 시름은 하늘 끝 너른 바다 이어 있고 愁連天際蒼茫海
 슬픔은 구름 사이 봉우리 사이 드네 恨入雲間歷亂峰
 돌아보니 철령관이 어디쯤인가 回首鐵關何處是
 역인은 아득한 먼 곳을 가리킨다 驛人遙指有無中⁷⁾

德原是 함경도 문천·원산 지역의 옛 이름이고, 鶴城은 강원도 安邊의 이칭이었다. 鐵關은 강원도와 함경도의 경계인 철령을 가리킨다. 박엽은 1611년 4월 함경남도병사에 제수되었는데, 이 시는 당시 부임길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큰 비를 무릅쓰고 학성을 떠나 말을 달렸는데, 원산에 이르니 날은 아직 저물지 않았다. 고향을 떠나 멀리 오니 자연 잠이 오지 않으니, 오동잎에 빗방울 떨어지

6) 권 1, 「輸城에 부임하는 윤동로를 전송하며 送尹期仲赴輸城」.

7) 권 1, 「저물녘 덕원 땅에 투숙하며 暮投德原」.

는 밤을 지새울 일이 아득하다. 마음속 시름[愁]과 아픔[恨]은 바다에 가득하고 여기저기 솟은 산봉우리들처럼 어지럽다. 역참의 사람들에게 넘어온 고개 - 그 너머에 고향이 있는 -, 철령이 어디 있는가 물으니 까마득히 먼 곳을 가리킨다. 철령은 고향과의 물리적 단절을 의미한다. 그 고개조차 까마득히 먼 곳에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고향과 멀어졌음을 뜻하는데, 그 안에는 미련과 집착의 탈각, 나아가 새로운 업무에 대한 다짐과 각오가 들어있다.

박엽은 조선의 문사 중 관외의 군사 업무를 주로 맡았던 흔치 않은 인물이다. 그가 머물렀던 곳은 변방의 군영이었고, 그의 눈과 귀에 가득했던 것은 바람 부는 황량한 풍경이었으며, 만나고 헤어졌던 사람들은 주로 군관들이었다. 그의 시에 이런 풍경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3.2. 軍幕의 逢別과 情恨

문학은 균열 속에서 잉태된다. 동일성의 균열은 상처와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낳고 삶의 구김을 만든다. 삶에는 구김으로 인해 생긴 주름이 있고, 이 주름 속에는 이야기와 노래가 쌓여있다. 동일성의 해체는 분열이고, 정신분석학 용어로는 분리이다.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벗어나면서부터 호된 분리체험을 하고, 이때 생긴 외상은 평생 불안을 조성한다. 존재의 탄생은 곧 분리의 아픔인 셈이다.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또 공통적으로 겪는 분리 체험은 죽음과 이별이다. 생리사별은 문학의 발생 지점이며 하나의 존재 근거인 셈이다. 박엽은 30대 중반 이후 변방의 외직을 전전했고, 외직 생활은 끊임없는 이별 사연으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생활 조건 하에서 박엽의 정서는 이별에 예민해졌다. 『약창유고』에는 이별의 정서를 섬세하게 노래한 시가 여러 수 실려 있다.

직녀 견우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織女牽牛相見期
해마다 초가을에 정해져 있지	年年長在早秋時
세상서는 세월 빠름 괴로워하나	人間苦恨光陰促
천상에선 더디다고 시름에 젖네	天上還愁歲月遲 ⁸⁾

8) 권 1, 「칠석 七夕」.

가을 물은 별 뜻을 두지 않건만	秋水太無意
가을 띄는 깊은 정 품고 있는 듯	秋山如有情
물은 흘러 잠시도 아니 쉬는데	水流不暫住
되 그리메 배와 함께 떠나가누나	山影共船行 ⁹⁾

두 수의 시에는 각각 ‘칠석’과 ‘월계’라는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지만, 더 큰 단위의 표지어가 없어 언제 어디서 지은 작품인지 알기 어렵다. 「칠석」은 칠석날 견우와 직녀 설화를 소재로, 천상의 특수 사연과 세상의 보통 정서 사이의 차이로 발생하는 시간의 상반된 속도를 재치 있게 표현한 시이다. 사람들은 늙지 않기 위해 시간이 더디 가기를 바라지만, 반대로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하루 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세월이 빨리 가기를 바란다든 뜻이다. 하나의 사안이나 현상을 두고 나타나는 정반대 수용, 해석을 한 시상 속에 담아내는 것은 박엽 시의 수사적 특징 중의 하나이다.¹⁰⁾ 「재과월계」는 흐르는 내와 머물러 있는 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별하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심경을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물은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을, 산은 못내 아쉬워하며 마음으로 떠나가는 이를 따르는 사람을 표상한다. 두 수의 시는 박엽의 내면이 얼마나 이별에 섬세하게 반응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가락은 낮게 잡겨 손 놓기 어려운데	歌低琴苦別離難
농산의 나무와 물 검푸르고 차가워라	隴樹蒼蒼隴水寒
설산은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무는데	我與雪山留此地
그대는 석양 따라 서울로 떠나가네	君隨西日向長安 ¹¹⁾

세상이 어지러워 지음 적거니	世亂知音少
그대 만나 비로소 술잔을 드네	逢君始舉觴
강산은 만고 이래 그대로인데	江山自萬古

9) 권 1, 「다시 달내를 건너며 再過月溪」.

10) 『소화시평』에 실려 있는 다음 시에도 이러한 기법이 잘 구사되어 있다. 권 1, 「安岳使酒席供鴈, 忽有過鴈聲聞, 請以卽事成詠, 應口走筆」. “去歲南歸春北征, 渚邊羅網忽無情. 來充太守盤中物, 從此雲間減一聲.”

11) 권 1, 「북청에서 沈諱을 전송하며 北靑送沈子順」.

시절은 흘러 다시 중앙절일세	節序又重陽
황량한 성 너머로 석양은 지고	落日荒城晚
골짜엔 숨어 핀 꽃 향기로워라	幽花小峽香
어이 견디리, 고각 올리는 곳에	那堪鼓角處
끊임없이 흐르는 애달픈 정을	脈脈更情傷 ¹²⁾

위의 시는 1611년 4월에서 1612년 9월 사이 함경남도병사 시절 지어진 것으로, 沈子順은 沈諷(1569~1644)이다. 2구에서 ‘隴’은 ‘隴山’을 가리킨다. 농산은 중국의 감숙성 남부와 陝西省 서쪽에 걸쳐 있는 산으로, 漢唐 시절 흉노와의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곳이다. 후대에는 보통 ‘邊塞’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연회 자리의 낮게 깔리는 가락과 변방의 풍광으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자와 흰 설산 / 대상과 붉은 석양[西日]’을 각각 묶어 머무는 자와 떠나는 자의 형상을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아래 시는 황해병사, 황주목사겸병마사 시절인 1608,9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양은 황주의 지명이고, 정보덕은 鄭宗溟(1565~1626)이다. 때는 9월 9일인데 마침 마음 알아주는 벗[知音]을 만났으니, 높이 올라 술 마시는 중앙절 풍속에 따라 동양산성을 찾았다. 첫 두 구절부터 지음을 만난 감격이 토로되었다. 날 저무는 황량한 산성 속 작은 골짜에 숨은 듯 피어있는 꽃이 향기롭다 함은, 험난한 세상[世亂] 속 두 사람의 짧은 만남이 자아내는 우정을 말하는 듯하다. 때마침 균영에 고각 소리 높이 울려 퍼지니, 두 사람 마음에는 웬지 모를 비애가 흐른다. 흐르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일까, 아니면 난세의 유랑에서 생긴 상처의 통증일까?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해석의 가능성도 닫히지 않는다.

『약창유고』 소재 작품 중에는 관외의 군막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정회를 노래한 시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¹³⁾ 이들 시에는 ‘갈림길 속에 다시 갈림길 있고[岐中有岐], 나그네 신세로 서로 헤어지느[客裏送別]’ 비감이 감돈다. 때로는

12) 권 1, 「동양산성에서 9월 9일 정사조에게 주다 東陽山城九日贈鄭士朝 鄭輔德」.

13) 「送金都事還洛」(7), 「次韻贈別睦御史」(8), 「送丁學官之鐵甕」(9)은 모두 서북 변경에서 이별하는 정을 읊은 시이고, 「送吳相國泛海朝京」(18)은 1622년 해로를 통해 명나라 사행에 나서는 오윤겸(1559~1636)을 전송하며 평양에서 지은 것이다.

삭풍이 몰아치고 달 아래 검광이 싸늘한 긴장감이 배어나오기도 한다.

3.3. 亂後의 廢墟와 孤寂

박엽은 전란의 시기를 살았다. 23살에 만난 임진왜란은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이때는 아직 과거 급제 전인지라, 박엽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강원도 일대를 전전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평안감사 시절에는(1619, 50세) 深河戰役을 겪었는데, 이 전역은 곧 일어날 두 차례 호란의 전조로 조선 전역에 불안의 암운을 드리웠다. 박엽의 시에는 전란 직후 황폐해진 국토와 그 속에 있는 처연한 심정이 드러나기도 한다.

백전의 폐허에는 잡초가 무성한데	百戰荒墟蔓草平
남쪽의 잔적들은 아직도 날 뿔다네	南中餘孽尙生獐
바람결에 왕손 한을 견디지 못하겠고	臨風不耐王孫恨
눈길 닿는 제도 곳곳 마음이 애잔해라	舉目偏傷帝子京
무너진 성 남은 몇 집 제비가 들 만하나	殘堞幾家堪館燕
옛 방죽엔 피꼬리 앓을 나무조차 없어라	古堤無樹可遷鶯
연광정 높은 다락 지금은 어디 있나	練光高閣今何在
부벽루 높은 다락 이름만 남아 있네	浮碧危樓只有名
강가 풀은 유정하여 옛 빛이 넘쳐나나	汀草有情饒舊色
여울 가선 야속케도 새 소리 배우누나	沙灘無賴學新聲
한 곡조 노래 소리 공연히 눈물지고	聽歌一曲淚空落
출새 행 3년에 혼은 놀라 달아날 듯	出塞三年魂欲驚
산 빛은 만 겹으로 큰 들을 둘러쌌고	山色萬重環大野
강물은 한 줄기로 외론 성 지켜준다	江流一帶護孤城
강남곡 ¹⁵⁾ 부를 만한 사람 없으니	無人解唱江南弄
먼 물가 아득하여 공연히 정이 이네	極浦茫茫空復情 ¹⁶⁾

14) 23번 시 「襄陽九日」은 피난 시절의 힘겨움을 담아낸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다.

15) 「江南弄」은 南朝 梁武帝가 지은 7편의 가곡으로, 조정의 연회에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평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폐허가 된 평양에서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란이 휩쓸고 간 뒤 만신창이 상태가 된 평양을 그려낸 시이다. 1,2구는 이 시가 한양 수복(1693년 4월 20일) 이후 아직 남쪽에 왜적이 창궐하던 시기에 지어졌음을 말해준다. 3,4구가 표면상 지시하는 것은 천제의 아들 고주몽과 전혼 낭자한 평양의 광경이지만, 그 이면에는 선조의 몽진과 백성들의 고통이 감추어져 있다. 5~8구는 전화를 겪은 평양의 황량한 모습이다. 봄은 왔지만 성벽 아래 제비가 등지 지을 집은 몇 채 안 남았고, 대동강 가 둑 위에 즐지어 서있던 버드나무도 간 곳이 없다. 아름답게 솟아있던 연광정과 부벽루는 불에 타 없어지고 대석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9~10구는 ‘변하지 않는 것(물가 풀빛 : 자연)’과 ‘달라지는 것(강가 주루의 노래 소리 : 인심)’ 대비를 통해 역사와 세태의 무상함을 부각시켰다. 11구의 ‘聽歌’로 보아 10구의 ‘新聲’은 새로운 노래 가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린된 국토에서 울리는 새로운 노래 소리에는 비애가 짙게 서려있고, 그 노래를 듣자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 것이다. 12구의 ‘出塞三年’은 평양에 온 지 3년 되었다는 뜻이니, 시가 지어진 시기는 대략 1595년 봄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⁷⁾ 전화가 휩쓸고 지났어도 산천은 의구하니, 사방 산은 평양성 밖의 들판을 둘러 있고 대동강 물줄기는 흘러가며 평양성을 지켜준다. 상처 깊은,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평양 산하! 이 풍광을 제대로 노래할 사람이 없어 그저 물결 따라 멀리 눈길을 보내는데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몽클해진다. 1595년 이면 아직 박엽이 벼슬에 나아가기 전인데, 그가 무슨 신분으로 평양에 갔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의문이다.¹⁸⁾

연평령 넘어가 창성 땅에 도착하니	延平嶺外是昌城
살기는 하늘 가득 고각이 울리누나	殺氣連天鼓角鳴
살아남은 병사들 돌아오지 못하는데	敗爲殘兵歸不得

16) 권 1, 「기도잡영 箕都雜詠」.

17) 1,2구의 내용으로 미루어 임진왜란 중에 지어진 작품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박엽은 전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1605년 평양서운으로 부임하여 3년을 일했으니, 1608년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18) 『약창유고』에는 임란 중 명나라 장수에게 준 「奉呈 缺 老爺惠以佳什」(47)가 실려 있는데, 당시 박엽이 아직 출사 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정황이 몹시 의아스럽다. 22번의 「亂後麒麟塗中」도 한양 수복 직후 지은 시인데, 麒麟이 어느 곳인지는 확실치 않다.

석양빛만 끝없이 대강에 빗겨 있네 夕陽無限大江橫¹⁹⁾

제목에서 두 원수는 1619년 명나라의 요청으로 1만3천의 군사를 이끌고 後金 공격에 나섰던 강홍립과 김경서를 가리킨다. 당시 조선군은 창성에 집결하여 이곳에서 압록강을 건넜다. 조명 연합군은 3월 4일 전투에서 대패하였고, 조선군 8,9천 명이 하루저녁에 몰살되고 나머지는 포로가 되었다. 박엽은 평안감사의 신분으로 전황을 파악하기 위해 창성에 도착했던 것이다. 연평령은 朔州와 昌城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로, 평양에서 출발하자면 여기를 넘어야 창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전선의 소식은 매우 비관적이었다. 전투에서 패했다면 나머지 병사들이라도 돌아와야 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겨우 압록강을 건너 돌아온 군사들은 후방에서 輜重을 담당하던 병력이라 전선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선불리 척후를 보내 사정을 파악하기도 어려웠으니, 그저 압록강가에 나아가 누군가 돌아와 주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 강을 건너간 조선군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 강물에 길게 석양빛만 드리워진다. 이 시는 1619년 심하전역 패배 직후 조정 보고를 맡은 관리의 초초한 심경, 그리고 조선에 드리워지는 전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잘 보여준다.²⁰⁾

3.4. 영욕·생사관의 일단

박엽은 많은 풍파 속에서 극심하게 부침하는 일생을 보냈다. 온 국토가 유린되는 전란을 겪었고, 문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반생 동안 서북 변방의 외직을 전전했으며, 왕조 사회에서는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강제력에 의한 왕위 교체 의 격변 속에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처형당했다. 광해군과 인척 관계로 정치 운

19) 권 1, 「두 원수가 패한 직후 창성에 이르다 兩元帥敗後到昌城」.

20) 본 절의 주제와 관련하여 7인 100구에 달하는 「述懷贈別柳亨伯諸君船往江都」(42) 시도 주목을 요한다. 이 시는 임진왜란 중, 강화도로 떠나는 柳希奮(1564~1623)·黃謹中(1560~1633)·鄭昌衍(1552~1636) 등을 전송한 작품이다. 전반부에 전란 발발의 원인, 국정의 無策과 혼란, 신료의 무능과 군사의 허약, 유린된 국토와 도탄에 빠진 백성, 그리고 피난생활의 고통 등을 비판적인 어조로 상세하게 그리고 있어 전란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창작 배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명을 함께 했으며,²¹⁾ 광해군의 신뢰와 비호 속에서 군권을 담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탄핵을 받으며 정치적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사후 실록의 평가는 혹독했지만, 재야에서의 의견은 그와 극단적 호평 일색이었다. 이 모든 것이 정치 영역 안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그의 생애가 정치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평가받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박엽은 번복 무상한 인정세태와 천변만화하는 삶의 곡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마음 한 편을 엿볼 수 있는 시 몇 수를 보자.

창문 앞엔 밤나무 가지	窓前栗樹枝
병든 잎 아직껏 흔들거리네	病葉尙離披
아침에 이미 서리를 맞았는데	朝旣受霜霰
저녁에 또 바람이 흔들어댄다	夕又風蕩之
가을 위세 겨우 피하였건만	自幸連秋威
곧 바로 겨울이 닥쳐왔어라	直抵歲寒時
어찌 감히 그 쇠약한 몸을	敢將衰朽質
송백의 자태에 견줄까보나	徑比松柏姿
봄 오면 새 잎이 돌아나리니	春來吐新葉
떨어짐 그 또한 마땅하리라	脫落亦其宜 ²²⁾

늦가을 또는 초겨울, 창밖에 보이는 밤나무 가지에 매달려 흔들리는 잎을 보고 지은 시이다. 병든 밤나무 잎을 노래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心象이니, 거기 묻어있는 것은 시인의 마음이다.²³⁾ 아침 서리, 저녁 바람은 모두 삶에서 만나는 (만나온) 시련이다. 가을의 도전은 겨우 견뎠지만 앞에는 훨씬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 시인은 속삭이듯 나뭇잎에게 말을 건넨다. “원래 쇠약한 몸이 아니냐! 송백을 흉내 낼 필요 없단다. 봄 되면 새 잎이 돌아나니 집착을 놓고

21) 광해군의 장인 柳德新과 박엽의 장인 柳自新은 형제 사이로, 광해군과 박엽은 사촌동서인 셈이다. 광해군 시기 척신으로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평가 받는 柳希奮은 박엽의 처남이다. 박엽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이승수(2007) 참조.

22) 권 1, 「느낌이 있어 有感」.

23) 이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본질적으로 “일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서시」)나 “느릅나무 어린잎들이, 가늘게 몸을 흔들곤 하였다” (김춘수, 「처용단장 1-1」)와 다르지 않다.

떨어지는 게 좋지 않으나” 기실은 자신에게 하는 독백이다. 너무 힘들게 맞서려고 하지 마라,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담고 있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피로감이고, 담고 있는 것은 달관이자 체념이며, 예감되는 것은 모종의 패배이다. 확단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로 보아 자신의 처지를 나뭇잎에 투영 또는 동일시한 결과로, 만년의 소작이 아닌가 싶다.

길 위의 진흙	途中泥
길 위의 진흙	途中泥
아침엔 거마 자취 배불리 먹고	朝飽車馬跡
저녁엔 소 양 발굽 식사를 하네	暮飯牛羊蹄
아침이며 저녁마다 진흙이러니	朝朝暮暮泥復泥
동쪽 도랑 서쪽 시내 버려진다네	棄置東溝與西溪
어찌 알았으리 제비가 와서	那知玄鳥至
하루아침에 새 둥지 지을 줄을	一朝營新巢
지지배배 입에 머금더니만	喃喃涎啣之來
천 길 붉은 처마 올라가더라	飛上朱簷千仞高
빈 들보에 떨어질 걱정도 없이	不患落空樑
아침 햇살 함뿍이 비추는도다	壘壘映朝陽
귀공자는 앉아 때로 눈길을 주고	鸕冠公子坐時見
잠에서 막 깬 미인도 올려보누나	睡起佳人墮珥望
세상사의 이치가 이와 같거늘	物情有如此
비천한들 무어 그리 마음 아프랴	卑賤何足傷
본디 뜻 얻음에 귀천 없으니	由來得意無貴賤
예전의 길가 신세 묻지를 마라	莫問從前委路傍 ²⁴⁾

제비집에서 시상이 着卵되었고, 제비집이 지어지는 과정이 追考되었으며, 신분이나 처지의 변화로 생각이 진전되어 이루어진 작품이다. 제비집은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진흙은 본디 길에서 수레바퀴나 소와 양에 밟히던 비천한 신세였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제비가 물고 간 뒤로, 집의 가장 높은 곳에서 부귀 공

24) 권 1, 「길 위의 진흙 途中泥」.

자나 미인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받는 처지로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시인의 생각은 마지막 네 구절에 응축되어 있다. 원래 세상의 빈부나 귀천은 정해져 있고 일조일석에 바뀔 수 있는 것이니, 당장의 처지가 비천하다고 해서 비관하지 말고, 나아가 성공한 사람의 과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 사마천의 “王侯將相，寧有種乎!”라는 발언이 떠오르는 내용으로, 그 배경과 대상이 궁금해지는 작품이다. 그저 한 말로는 보이지 않고, 무심하게 던진 발언이라고 해도 그 안에 ‘진흙’에 그치지 않는 의미가 감추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런 내적 맥락 없이 이처럼 정제된 시가 지어졌을 리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구의 어조로 보아 이 시는 자신에게 던지는 독백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었거나, 증여하였거나, 최소한 마음속에 떠올리며 - 낸 발언으로 보인다. 표면상 박엽은 한 번도 비천한 처지에 놓여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엽은 서얼들과 함께 역모 죄로 처형당한 허균과 가까웠으며, 인조반정 직후 이이첨의 도당으로 몰려 역시 처형당한 서얼 출신 문사 李再榮(1553~1623)과도 친분을 유지했다.²⁵⁾ 어쩌면 그 대상은 군영 생활을 함께 했던 하급 군관일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옥중의 처지와 다짐’을 담은 賦 작품이다. 『약창유고』에는 강렬한 주제의식의 네 편 부가 실려 있다. 왕실의 사치와 국운의 쇠망을 엮어 노래한 「盤石侯賦」, 한 목숨을 바쳐 국가 위란을 온 몸으로 막아낸 열혈지사들의 사연을 노래한 「動髮賦」, 조조의 魏나라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화의를 주장하는 신료들 앞에서 탁자를 쪼개며 기염을 토한 孫權의 사연을 담은 「斫案賦」, 그리고 이어 살필 36구의 「不祭臯陶賦」가 그것이다.

감옥은 에워있고 가시 숲 킁킁한데
 폐안(狴犴)은 사납게도 울부짖누나²⁶⁾

北扉圍兮棘林幽
 狴犴咻兮嗥嗥

25) 24번 「洗肘日涓江舟中和李再榮」은 평양에서 이재영에게 준 시로, 그 내용에 범상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재영에 대해서는 김창호, 「李再榮과 『秋苑詩話』」, 『漢字漢文教育』 24, 2010, 619~647쪽 참조.

26) 1구의 北扉는 감옥의 다른 표현이고, 棘林은 죄인을 圍籬安置할 때 만들었던 ‘가시 울’이다. 2구의 狴犴은 전설 속 용의 7번째 이들로, 刑獄을 좋아하여 감옥에 그 형상이 조각되거나 놓이

무소도 아닌 나를 묶어놓았고	匪兕吾爲押兮
돼지도 아니거늘 가두어 두니	匪豕吾爲牢
눈은 아득 귀는 먹먹하여라	目窅窅兮耳不聞
죽을죄라면 신은 살지 못할 터인데	臣罪當誅兮不可活
옥리가 살 길을 알려준다며	圜吏指余以生道兮
고요를 제향하여 효험을 보라 하네 ²⁷⁾	祭於士兮效孔灼
내게 술은 물론 안주도 있으니	我有酒兮我有肴
정성껏 술을 따라 빌 수는 있지	可虔誠而一酌
죽기 싫음 똑같은 사람의 마음	人情同於惡死兮
한 번 제향 내 어찌 꺼릴까마는	一祭之吾何憚
하지만 내 마음 이미 정해졌나니	然余心固有定兮
내가 지은 죄에서 도망 못 가리	孽自作之難遁 ²⁸⁾
살겠다고 구차하게 발뺌을 할까	余豈欲貪生而苟免兮
하늘 앞에서든 나는 숨길 게 없네	天臨余之有赫
옛날 현인들은 천명을 알아	昔哲人之知命兮
죽음을 그저 돌아감이라 여겼지	視之死尙如歸
도를 믿음이 도탑고 알차거늘	信道之篤實兮
옛 현인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리오	微前修吾誰依
하물며 고요는 형벌에 밝았으니	況前士明于五刑兮
백성들에 사사로이 적용했을까	寧有私於下民
하늘이 그대에게土를 맡긴들	雖命汝以作士兮
그대 사사로이 가두고 죽이는 것 아닐세	非汝之刑人殺人
하늘이 내 목숨을 거두려 하면	天之將絕我命兮
일개 고요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	一臯陶其奚爲
하늘이 이 목숨을 남기려 하면	天之未絕我命兮

는 일이 있었다.

27) 원문에서 ‘土’는 舜 임금이 臯陶에게 주었던 벼슬 이름인데, 그 직책이 형벌을 주관하는 일이었다. 순은 제왕이 된 후 禹를 司空에 임명하여 물과 땅을, 棄를 后稷에 임명하여 곡식을, 契를 司徒에 임명하여 윤리를, 臯陶를 土에 임명하여 형벌을, 益을 虞에 임명하여 초목과 조수를 담당하게 했다.

28) 『孟子』, 「公孫醜 上」에 太甲의 말로, “하늘이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자기가 만든 재앙에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 天作孽, 猶可違; 自作孽, 不可活.”고 했다.

제향하지 않음이 마땅하리라	不祭之而亦宜
내가 죽고 또 내가 사는 일	我死兮我生
고요 아닌 하늘에 달린 것이니	在乎天不在臯陶
구차하게 귀신에게 아침을 하라	苟媚神而諂鬼兮
하늘에 죄 지으면 빌 데 없으니	得罪天無所禱也 ²⁹⁾
살겠다고 의리를 해치지 말자	毋求生而害義兮
공자께서 어찌 나를 속일까 보냐	彼宣父豈欺我兮
사지가 흩어져 일조에 죽는다 한들	寧體解而溘死兮
내 차마 그런 짓은 하지 않으리	吾不忍爲此態也 ³⁰⁾

앞의 두 시가 榮辱에 대한 유연한 인식을 보여주는 반면, 이 부는 매우 단호한 생사관을 보여준다. 작품 안에서 화자는 옥중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상의 상황인지 실제 옥중의 체험인지는 분명치 않다. 후자라면 처형되기 직전 평양의 감옥에서 지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실제로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화자에게 살길을 알려준다. 고대 刑獄을 맡았던 臯陶에게 제사를 지내 살려달라고 빌라는 것이다. 물론 이 옥리 또한 가상의 인물로 보아야 한다. 이에 화자는 공자와 맹자의 말을 이끌어 와서, 죽으면 죽었지 그런 구차한 작태는 보일 수 없다고 혼자 다짐한다. 이는 살아온 과정에 대한 성찰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차해지지 않으려는 수행의 다짐이다. 나아가 자기 결백의 항변이자,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촉구이다. 박엽의 최후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야사에 따르면 그는 반정 군사에게 체포되는 순간에도 별 동요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감된 뒤에도 지은 죄가 없다며 태연해 했다고 한다.³¹⁾ 또 처형되기 직전까지도 정국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으며, 연고를 들은 뒤에는 젊은 시절 친분 있던 반정 공신들의 처사를 탄식했다고 한다. 반정 세력이 박엽에게 연좌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또 가족들로 하여금 시신을 수습하여 안장하게 한 것으로 보아,³²⁾ 조속한 반정의 성공을

29) 공자는 王孫雋의 질문에,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데가 없다. 獲罪於天, 無所禱也.”고 대답한 적이 있다.(『논어』, 『팔일』)

30) 권 2, 「臯陶를 제향하지 않는 이유 不祭臯陶賦」.

31) 『국역 연려실기술』 권 23, 「인조조 고사본말」. (『속잡록』의 기록을 인용한 것임)

위해 잠재 위협 인물인 그를 제거한 것이지 중죄인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외부 기록에 보인 박엽의 최후 면모는 어느 정도 이 작품의 내용과 부합한다. 이 부가 실제 처형 직전 평양 감옥에서 지어진 것이라면 그 안에 담긴 화자는 박엽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며, 그보다 이른 시기에 가상의 상황을 담아 지은 것이라면 위태로운 정국의 한가운데 있던 그의 평소 생사관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몇 수의 시를 통해, 인간 박엽의 몇몇 면모를 살펴보았다. 서북 변계의 외적을 옮겨 다니는 약간 피로한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 가운데 사람들과 이별하는 내면의 잔잔한 파동도 감지되었다. 전란이 훑고 지난 도시를 바라보며 허탈감에 잠기고, 분명치는 않지만 강하게 밀려오는 전운의 그림자 속에 서있는 장면도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기운을 느끼며 체념하는 듯한 무의식의 작용도 시어 안에 감추어져 있었으며, 죽음을 상상 또는 맞이하면서 풀죽지 않는 의기의 격동은 작품 밖으로 흘러 넘쳤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국정의 혼란과 백성의 고통을 우려하는 충정, 국가 위란의 시기에 지도층이 보여야 할 행동의 표본도 시를 통해 표출되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정치적 평가로만 복개할 수 없는, 숨을 쉬며 54년을 살았던 인간 박엽의 여러 면면이다.

그는 54세 되던 해인 1623년 정월 보름날 평양에서 法水橋³³⁾를 밟은 감회를 아래 시로 남겼다.

한 시대 관서백이요	一代關西伯
천 년의 법수교로다	千年法水橋
오늘밤 둥근 저 달도	只應今夜月

32) 위와 같은 곳. (『일월록』의 기록을 인용한 것임)

33) 평양에 있던 다리라고 하는데, 지리지나 지도에는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水’ 자 대신에 ‘淸’나 ‘灑’ 자가 사용되기도 했다.

가여운 밤이 되겠지 終作可憐宵³⁴⁾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여러 행사가 떠들썩하게 펼쳐지는 대보름날, 평안 감사는 수하들과 함께 법수교를 거닐었다. 답교는 대보름 풍속의 하나였다. 하늘에는 대보름달이 밝았고, 명절을 즐기는 평양 사람들과 그 속을 거니는 감사의 행차는 상상하기에도 화려하다. 이 풍요와 충만의 분위기 그득한 명절에, 그는 문득 자신의 지위가 잠깐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느끼고 허무감에 사로잡혔다. 지금 저 등근 달도 며칠 지나면 기울어지듯, 나의 이 지위와 신분도 곧 쓸쓸해지겠지! 이는 사람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던 박엽 내면의 미묘한 동요였다. 그는 이를 짧은 시로 표현했고, 그의 사후 사람들은 이 시가 자기 죽음에 대한 예감의 표현이라고 했다.³⁵⁾ 박엽은 54세 되던 1623년 정월 보름날 짧은 시를 가한 수 남겼고, 이로부터 두 달 뒤에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날 밤 과연 박엽의 뇌리에는 한 순간 그런 섬뜩한 느낌이 스쳐갔던 것일까?

박엽은 정치 변동 속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판단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졌다. 탐학한 酷吏 아니면 유능한 將才, 평가는 도덕적 이분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박엽의 삶에서 그런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문사임에도 軍事에 밝았고, 단정함을 강요받던 儒者이면서 방탕한 豪傑을 지향했으며, 장난기가 많아 파격적인 언행을 일삼았는데 그것이 도덕적 지탄의 빌미가 되었던 인물로 보인다. 삶의 결과 내면의 파문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하여 한두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위 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결과에 기댄 편의적 해석일지도 모른다. 본고는 야담 속에 그려진 바 위대한 영웅의 면모를 지닌 박엽도 아니고, 정적에 의해서 평가된 탐학한 관리로서의 박엽도 아닌, 즉 사후 덧씌워진 역사적 평가의 언어에서 벗어나 이 별을 슬퍼하고 운명 앞에서 불안해하던 인간 박엽을 발견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박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기를 기대한다.³⁶⁾

34) 권 1, 「계해년 정월 법수교를 밟다 癸亥正月踏法水橋」.

35) 한 예로 선조 인조 연간의 일들을 모아놓은 야사 『逸史記聞』에는, 창작 정황과 함께 이 시를 실은 뒤, “시어와 그 뜻이 서글픈 것이 평소의 시와 다르니, 죽을 조짐이 벌써 이 시에 드러난 것이다. 辭意悽惋, 大異於平日所作, 絕命之兆, 已於此詩見矣.”라고 평하였다.

참고문헌

- 박 엽, 『葍窓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의산문고
이궁익, 『국역 연려실기술』, 고전번역원.
허 균, 『국역 성소부부고』, 고전번역원.
홍만중 / 안대회 역주, 『소화시평』, 국학자료원, 1993.
김경희, 「이충백전에 나타난 체제공의 문제의식 고찰」, 『한국문화연구』 49, 동국대 한국
문화연구소, 2015, 157~188쪽.
(UCI: G704-001857.2015..49.010)
김창호, 「李再榮과 『秬苑詩話』」, 『漢字漢文教育』 24,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0, 619
~647쪽.
(UCI: G704-001732.2010.1.24.003)
신승훈, 「번암 체제공의 이충백전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5, 한국어문한국
제학술포럼, 2014, 69~98쪽.
(UCI: G704-SER000002284.2014.25..007)
엄태웅, 「박엽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45, 우리어문학회,
2013, 137~180쪽.
(UCI: G704-001387.2013..45.008)
이승수, 「葍窓 朴燁論」, 『민족문화연구』 4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137~174쪽.
(UCI: G704-000804.2007..47.005)

36) 이 글은 2018년 11월 30일 경기도 양주시 문화원에서 개최된 ‘약창 박엽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이 학술심포지움을 계기로 박엽과 다시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 Abstract |

Poetic World of Yakchang Bak Yeop

Lee, Seung-su

The public opinions on Bak Yeop are extremely contradicting. While the power succeeding in the Injo restoration severely criticized him as the ‘greedy officer who did nothing but tyranny’, those out of official circle talked up him as the ‘competent leader died on a false charge even in spite of his ability enough to overcome national disaster.’ Even he was compared to the Great Wall of China. The former opinion was caused by the excessive derogation in the process to justify the Injo restoration and the latter opinion was formed and slightly exaggerated him in accordance with wonder, discontent and denial on the Injo restor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daily life and inner world of Bak Yeop as the individual existence around his poems without considering his political movement and evaluation on him in the history.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out that he was so exhausted as moving around and taking the government posts in borders in the northwestern region. Moreover, the gentle wave inside him as parting from others was identified. He also showed the letdown as watching the towns damaged by wars. The movement of unconsciousness as if giving up as feeling the aura of death was hidden in his poetic words. The turbulence of spirit which never let down in front of death or imagination of death also overflow in his works. All of them demonstrated the diverse aspects of Bak Yeop, the active individual existence living for 54 years, who couldn’t be evaluated only by the political viewpoint.

Key words : Bak Yeop, King Gwanghaegun, Injo Restoration, Literary Remains of Yakchang, Beopsugyo Bridge

